심안의 줄이 바로 반야의 줄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어려운데, 스님께서는 늘 '말겨라, 관하라' 하시는데 더 쉽게 잡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하하하.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송장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것도 자기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으면서 천차만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적이죠.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지만, 역력하게 말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작용하고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음이 다르고 그냥 마음이 다르다는 거는 속에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만 알면, 외부의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된다. 사대성인들이 모두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너부터 알아야 큰 공덕이 되지, 너를 모르고는 절대 공덕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공덕이란 뜻은,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나 하나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하고 같이 한자리를 할 때에 비로소 공덕입니다.

▲질문자3: 공부하다 보니까요, '놓아야 된다' 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자식놈이 눈앞에서 깔장거리는데 영 마음이 잘 안다스려집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자식의 물질적인 육신이 까닥까닥하는 거지, 마음이 까닥까닥합니까? 그 육신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다가 놓으면은 슬며시,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거지,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육신은 움죽거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놀음을 마음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육신을 잡으려고 하거나 말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가서 안 들어오든 공부를 안하든, 걱정하지 않을 원력이 서면 걱정이 안되죠. 권투선수가 정상에 도달했을 때에 누가 온다해도 걱정이 안되죠. 만약에 기술이 설 익었으면 걱정이 되죠. 온통 떨리고 부자연하고 무겁고 하지만은, 설익지 않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까닭에 잔잔하게 그냥 돌아가요. 걱정이 없는 까닭에 그 마음하고 다 통하니까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는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이 생기면은 걱정이 되지 어찌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걱정이 돼도 바깥으로 온통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익은 사람들은 안으로, 걱정이 생긴 것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부지런히 육신이 뛰면은 그냥 걱정 없이 해결이 돼버리죠.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쳐놓고 움죽거리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육신으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면서 사는 세태다 이겁니다.

가부좌를 틀고 좌선을 하고 앉았으면 앉아있는 그 시간만 우주가 돌아가고 멈추면 우주가 안 돌아갑니까? 그러니 섰으나 앉았으나 누웠으나, 자나깨나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시공이 없이 우리도 일하면서도 뭐가 생각나면은 거기다 놓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부지런히 걱정 근심하지 말고 뛰란 말입니다.

▲질문자3: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니 말로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게 생전 안 잡아지죠. 이 세상에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땀을 흘려야 시원하고, 시원하니까 땀을 흘리고 이런 거죠.

▲질문자4: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확철대오 하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신묘한 우주의 모든 일을 신통하게 된다는데, 그 시점에 대자유인으로서 경계가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중도에서 얘기하는 삼재원융이나 또는 부작사재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사고에 그 관념을 갖지 않는 예컨대, 부처님한테 착을 둘 것 같으면은 부처에 빠지고 열반에 착을 두면은 열반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를 무심 또는 아까 말씀을 올린 대무심지의 상황으로 봐야지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니까 언어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냥 스님 말씀대로 오면은 치고 또 으면은 받고 경계없이 일상생활을 자연과 같이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여러분이 실지 실천을 해봐야 알고,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겪어봐야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 이치대로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낳기는 하되, 그 애가 어른 노릇은 못하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수행정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애를 생산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육신이 태어났지 정신이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이 태어났으면 바로 육신을 이끌어 가는 참 나, 정신을 태어나게 해서, 태어나게 하면은 바로 견성입니다. 그런데 견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견성한 자체를 키워야 하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안에 모든, 즉 말하자면은 체험을 하면서 자꾸 진행해 나가죠.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가듯이 또 놓고 들어가야죠. 체험하는 것이 하나뿐이 아니라 또 놓고 들어가고 또 놓고 들어가서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죠.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그 땐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열반경지에 든다는 것은 둘 아니게 화하고 나투면서 어느 만물만생이든지 원하는 자에게 응해줄 수 있는 변재가 필요한 거죠. 즉 말하자면 지금 화해서 진화돼서 나투면서 돼지가 원하면은 돼지 속에 들어가 돼지가 되고, 내 육신 속에 모든 의식들이 화해서 보살로 화해가지고 그것이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능할 때 도리천에 이르고 구경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모두를 말없이도 할 수 있고, 말없이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데,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만 듣고 아무리 책을 보고 무불통진했다 하더라도 내가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 너를 믿고 너를 깨달아라
> 네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 네 나무서 꽃 필수 없고
> 열매 또한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무궁무진하게 아는 것도 필요없다, 오직 나를 발견해서 어른이 되고 또는 늙어야 된다. 늙으면 생사도 없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띄어놓고 한 발 딛고, 내가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님에서 벗어난다면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 찾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는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유위법을 가르치고 나서 무위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주좌와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는데 어떻게 틀고 앉아서 합니까? 애고가 오는 데로 밀쳐 나가고 타파해가면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질문자4: 문자와 언어를 버리고, 관념을 버리고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구요, 또 모든 법이 인연따라 생기는 거지만 고정화가 안되니까 공과 유와 다 같다 이쪽으로 원융을 해라하는 얘기가 책에 있구요. 인간이 고와 집을 버리고 도를 떠나서 생멸을 생각하지 않고 열반할 것도 버리라는 그 문자가 하나의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끝이 향하는 방향은….

▲스님: 방편이지만 현실이고 현실이지만 방편이죠. 방편이라고 해서 이론을 방편으로 한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방편 아닌 방편입니다.

▲질문자4: 그러면은 물 속에 달이 떴는데 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울 속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경계하지 말라 하면 그게 정답입니까? 있다고 해야 합니까, 없다고 해야 합니까요?

▲스님: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테고, 아는 사람은 있다고 할테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돌부처의 마음이, 저 형상인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일체 만물을 다 응시하시고 비추시고 통하시고 그러는 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부처님이 계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계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통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 속에 아무 말 없는 돌부처 안에 부처님의 얼굴이 있느냐 없느냐, 생수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어린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아예 물을 수도 없는 말이고, 깨우친 사람들끼리 한 소식 얻은 사람 앞에 던지면 탁 알아들어서 받아넘기겠죠.

▲질문자4: 공부를 하면서 특히 제일 의심이 가는 게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되는데, 이 공부할 때는 시공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공부에 더 좀 도움이 될지….

▲스님: 무슨 해결입니까?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화돼서 바뀌는데 시간을 재서 말합니까? 이 사람 만날 땐 몇 시간인가 재고, 저 사람 만날 때 또 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길을 가다가 이 사람 만나면 마음이 돌아가서 자녠가? 하고, 또 금방 식구를 만나면은 여보 뭐 어쩌고저쩌고 시간 잴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초월된 상태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초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니다 하고 가니까 그런 거죠.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잘하십니다. 천지에 꽃비가 내리는 듯 합니다. 아마 요다음에도 모두 모여서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모두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아마. 정말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8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생각 잘하면 무명천 없어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10kg(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15만원 ■ 2Box × 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순추복 재질 : 모직(혼50%)
1.적삼, 바지, 쏘매 ₩130.000 / 2.동 방 ₩110.000 / 3.두루막 ₩120.000

하복 재질 : 모직(혼50%)
1.적삼, 바지, 쏘매 ₩130.000 / 2.동 방 ₩110.000 / 3.두루막 ₩120.000

조끼 · 웅베 셔츠



7.조끼, 웅베 ₩50,000 / 7.셔츠 ₩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부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초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올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엄선된 재료를 이용해 고올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대합쌍서 생산합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올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본당 차한방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올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식 6조
1. 체질개선
2. 건강증진
3. 피로회복
4. 완전한 다이어트
5. 완전식사
6. 식습관 개선
(생식요법)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른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빙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도 좋습니다.

"㈜고올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올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생식 완료 : 현미, 대두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치즈, 수수, 옥수수, 메밀, 참, 양근, 무엉, 신선초, 계절, 참프리, 감잎, 뽕잎, 잡, 초칙,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면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초박맥가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